

사회

# 관리소홀 자전거보관소 텅 빈 채 쓰레기만 수북

## 광주 2000여곳... 이용자 거의 없고 훼손 심각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며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자전거를 보관하는 일부 보관소는 관리소홀로 방치돼 도심의 흉물이 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현재 각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 연계 지점 등에 250만~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철재 '비·햇빛 가림막 자전거보관소'(10대 보관 가능·가로 5m)를 설치했다.

현재 각 구청 민원인 주차장 또는 버스승강장·근린 공원 등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는 2000여곳. 자전거보관소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보관소가 관할 구청의 관리소홀로 비·햇빛 가림막이 훼손되거나 행인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로 가득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구청 주차장 등에 마련된 자전거보관소는 이용자 거의 없어 텅 빈 채 부족한 주차공간(3~4면)만 차지, 차를 몰고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동구청과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에 마련된 자전거보관소는 이날 텅 비어 있었으며,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앞 사거리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는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서구 농성동 옛 서구청사 안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는 관리소홀로 비·햇빛가림막과 거치대가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이 자전거보관소는 서구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옮겨진 뒤 불용처리된 것이다.

대학생 이모(23·북구 두암동)씨는 "동구에 있는 학교까지 매일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자전거보관소가 너무 지저분해 이용하기조차

꺼리진다"며 "대개 자전거보관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있는데, 관리가 소홀하면 바로 표시가 나는 만큼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구에서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청소나 수리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에는 124개 노선 총 길이 473.8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으며 시민 자전거 보유대수는 30여만대와 1557대의 공공자전거가 있다.

시는 2014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7%(지난해 2.4%)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도가니' 뜨자 인화학교 감사 '부라부라'

## 광주시교육청, 뒤늦게 대책반 구성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뒤늦게 대책반을 구성했다.

이 사안이 법률적으로 일단락돼 시교육청이 학교폐쇄 등 강경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감사, 인사 등 7개 부서 담당자로 가칭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을 구성, 이 학교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와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장애학생을 위탁교육하는 이 법인에 대해 위탁을 취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영화로 인화학교가 재조명되고 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책반 구성 발표가 나온 점에 대해 네티즌들은 "때늦은 감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서 이 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과 시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성폭력 등 혐의에 걸렸고 고발 조지됐음에도 집행유예에 결정이 내려지고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한

교직원이 해당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은 관련 법규·규정의 미비와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법인의 파렴치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청각 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지난 2000년부터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이 학생들을 성폭행해 논란이 됐다. 한 직원이 2005년 6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이 사실을 폭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인권 위 등에 의해 고발된 6명 중 2명은 징역 1·2년형,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나머지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했고, 그 중 1명은 지금도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이다.



## 등하굣길 형사기동대 배치 학교 폭력 사전에 막는다

학교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등하굣길 주변에 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인근에 순회법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 700여곳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또 전국 249개 경찰서에서 학생안전 전담 경찰관이 지정돼 관내 모든 학교와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전국 지방경찰청 생활안전·형사과장과 각 시도 교육청 학생안전담당 장학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안전강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검거에 주안점을 두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해 학교 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 요인을 앞서 제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등하교 시간대 지역 경찰의 순찰 외에도 형사기동대를 배치해 급급 갈취자 폭력행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성범죄자가 주변 1km 이내에 거주하는 전국 738개 초등학교에는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 김장철 다가오니 ...

## 베트남산 소금 81t 천일염 둔갑 수천만원 부당이득

### 서해경찰, 50대 구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값싼 베트남산 소금을 신안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소금 도·소매업자 김모(57·목포시)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0

kg들이 베트남산 소금 2만 포대를 수입해 원산지가 신안으로 표기된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약 2700포대(81t)를 판매해 수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이 치솟자 포대당 4000원 가량의 베트남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의 가정과 음식점, 김치 공장, 굴비 공장 등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판매한 베트남산 소금은 식용이 가능한 사분(포대 성분) 함량 기준 보다 최대 5배 가량 높아 사람이 먹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 = 고영식기자 youosu@

## 피존 전 사장 폭행 무등산과 3명 구속

서울 강남경찰은 생활용품 기업인 피존의 이은욱 전 대표이사 사장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 등 3명을 구속하고 피존 현직 임원 김모(50)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폭력조직 무등산과 소속인 김씨 등 3명은 지난 5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하는 이 전 사장을 아파트 입구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전 사장을 폭행한 약 2시간 뒤 피존 김모(51) 전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전 사장이 폭행당한 거 알고 있느냐. 조심해라.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느냐"고 협박한 혐의

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피존 임원 김씨의 범행 연루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월 피존 사장에게 취임했으나 4개월 만에 창업자인 이은욱(77) 회장에 의해 해임됐고 역시 파면된 김 전 상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사장은 이 회장 측이 폭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피존 관계자는 "정확한 사태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이 회장의 사건 연루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경찰 조사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교통정리 경찰관 친 뺑소니 운전자 추적

27일 오후 7시경 광주 서구 차평동 운전저수지 교차로에서 교통 정리 중이던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김모(47)경사가 광주공항 방향에서 운전저수지 방향으로 달린 회색 유틀마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김 경사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를 친 유틀마 승용차는 그대로 직진, 농성교차로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토대로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반값 등록금 실현 촛불 수업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300여명이 27일 밤 광주 서구 충장로4가 조흥은행 앞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 아와 촛불 수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입학 후 일정수준 성적 유지면

## 전남대, 농어촌高 출신 학생 등록금 면제

전남대는 내년부터 농어촌 고교 출신 신입생들이 입학 후 일정 수준(3.5점 이상)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면 최대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기

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농어촌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모두에 해당되며 전국 읍면 단위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부모가 현

# "보석조건부 구속영장제 검토"

##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은 27일 인신 구속제도와 관련, 영미법 체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석조건부 영장제도'가 수사효율과 피의자 인권을 절충할 수 있는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입박한 대법관 인선에 대해 출신·학교·성별을 포괄하는 다양성을 추구하겠지만 고도의 법률적 소양과 경험을 가진 인물이 제한된 현실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는 왜곡된 대법원의 현실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뚜렷이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서초동 대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돼 있고 원칙으로 추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미에선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미리 보석처분을 정해버린다. 영장은 형벌의 사전징벌이 아니라 신병확보의 수단이다. 구속을 시키면서 보석조건을 함께 정하면 수사효율도 살리고, 피의자 자유권도 살리는 양면의 토끼를 잡을 방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런 보석조건부 영장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보석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영장을 발부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용환 전 대법원장 재판 시절 법원과 검찰 사이에 끊임없이 반복됐던 '영장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남의 집 들어가 '실례'하고 주인 폭행

○남의 집에 들어가 소변을 본 것도 모자라 집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경찰서행.

○2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5)씨는 지난 26일 밤 10시35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이모(55)씨의 집 앞마당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본 집주인 이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실수로 이씨의 집에 들어가 '실례'를 한 김씨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뛰쳐나온 이씨가 "누군데 남의 집 앞마당에 소변을 보느냐"고 묻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0월 4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영문소장직(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아간반 농림직/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